

2.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2).

지난 시간에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불교에서는 시작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한(無限), 연기(緣起)가 있을 뿐이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다.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마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인생과 우주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무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념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파도가 이는 것은 어디서든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작이 없는 일은 없다. 창세기는 우주론적인 철학을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쓴 것이다. 관계는 시간 안에 있고 시작과 마침이 있다. 그리고 끝은 그 다음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이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말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나며 자라나면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하게 된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인 것이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한 것은 시작과 완성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작해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완성이 있는 것이다.

완성이 안되면 생명이 아니다. 공장에서 찍어 만든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완성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시작이라고 하고 말 것도 없다. 공장에서 완제품이 나오면 그 날부터 망가져 갈 뿐이지 그것이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라나는 것이고 관계도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를 것이다. 옆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늘 달라지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지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시작은 있는데 완성이 없다면 저주인데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으니까 축복이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완성이 안된다면 저주다. 아이를 낳은 것은 시작인데 시작만 있고 완성이 없으면 저주다.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아 놓으면 자란다. 아무 것도 모르던 아이가 크면서 하나 둘 알아가

고 말을 해 가는 것을 보면 너무 귀엽다. 그것이 축복이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다. 'In the beginning'은 시작이라는 말인데 알기 쉽게 하려고 우리 말로 창세기라고 번역했다. 우리도 다 창세기가 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시작이 있다. 육신으로 시작한 생일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날이 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날이 우리에게 더 복된 날이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무슨 연유로 해서 관계가 생겼다.

내가 열 살 때쯤에 이웃에 갑자기 어느 선교부에서 파송한 전도자가 왔다. 그 전도자는 장님이어서 여남은 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성경도 그 아이가 읽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른들이 열 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나 나나 다 교회라고는 처음이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가 보다.'라고 짐작된다.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시작이었다. 열매를 거두는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참으로 복된 날인데 그때 나는 그것을 몰랐다. 단지 이웃에서 오라고 하니 갔던 것이고 들어 보니 들을 만해서 다녔던 것이다.

그 뒤로 다른 전도사님이 와서 그분과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같이 있기도 했다. 사람이 좋은 분이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내가 좋아했고 그분도 적절한 판에 내가 있으니 좋아하셨다. 그 동네에서 내 또래의 친구들이 다 한 번씩 왔다 갔는데 나만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다녔다. 제일 먼저 왔던 사람치고는 나만 남았으니 그 교회로 말하면 나는 터줏대감인 격이다. 그런 것이 우연한 일인 것 같은데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무슨 시작이었고 나로서도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의 계획에 따라서 추수를 한다. 옥수수를 뿌렸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옥수수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농부의 계획에 따라 썬서 먹을 옥수수는 좀 일찍 따고 말려서 먹을 옥수수는 좀 늦게 따다. 씨는 언제 자기가 추수될지 모르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언제쯤 추수할 것이고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에 의해서 지정되었다. 요즘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것은 없다고 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연구해서 알아낼 수는 없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시작을 모른다. 어디를 찾아가서 알 수 있겠는가?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근원을 찾아 봐야겠다며 찾는다면 무엇을 찾겠는가? 과학적인 상식으로 추적해 올라가 본다면 자기는 원래 벌레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자는 정충이라고도 하는 벌레다. 그 정충이 어찌어찌 해서 자궁 속에 들어갔고 그것이 사람이 되어 나온 것이다. 근원을 추적하면 그 이상 무엇을 더 추적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모른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는 일이고 생각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 안에 낳아진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존재인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인생에 기점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면 공중에 뜬 구름처럼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할 수 없게 된다. 근원을 모르는데 무엇을 하겠는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근원을 모르는구나. 근본을 모르는구나.’ 사람이 근본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에 근거한다 하면서 성경의 근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본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해답이 없는 것이다. 인생이 어디서 생겼다는 것이 있어야 목적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길이 있는데 근본이 없으니까 답이 없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다.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는 종교인데 마지막 대답이 없다. 마지막 대답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는 사람은 없다. 성령이 하신다고 하니까 막연하고 막막하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면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하는지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기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전능자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우리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다 모른다. 그런데 전능자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점이 있는 인생이 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점이 없어져 버린다. 기점이 없으면 허무맹랑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별 것을 다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아무 것도 모른다. 답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였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원래부터 혼돈하

고 공허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창조한 세계는 완전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개입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항상 방해꾼이 생겨서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방해한 것을 넘어 서면 또 다시 방해하고 그것을 또 넘어 서면서 과정을 거쳐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해할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완성된다.

요한계시록에는 새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의 문은 열두 문이고 문마다 진주 문이다. 그 문들은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는 문이다. 왜 열려 있는가? 적이 없으니까 열려 있는 것이다. 왜 적이 없는가? 문 자체가 승리의 문이기 때문이다. 진주는 조개의 몸에 부정적인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계속 싸고 또 싸서 완전히 밀봉해 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적이 없는 것이다. 그 안에 모래가 있겠지만 모래는 깊이 속에 감춰져 있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경륜의 마지막이다. 그 성에는 적이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그렇지 않다. 아직 진주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이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은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르다. 처음에는 허점이 있고 방해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마지막은 방해꾼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믿고 노력해도 허점이 많고 공격받을 데가 많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허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가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천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내용이 그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아주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다. 방해꾼이 늘 있으니까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중세 때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소설이고 지금도 사람들은 천성에 가려면 계속 싸우면서 가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지금도 있다. 지금도 세상은 모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고 있다.

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겼는가? 왜 사람 사는 데는 다 이런 것이 있는가?

왜 인간에게 이런 것이 있는가? 자연 세계를 보면 사람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된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되고 만다. 문을 닫아 놓고 아무도 못들어가게 해 놓았어도 오래 되면 폐허가 되고 만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가만히 두어도 폐허가 돼 버린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으면 폐허가 되고 만다. 나는 사람인데 왜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 속에 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인데 참 사람이 없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소위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 안에도 역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세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겠는가! 왜 기독교 안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이상할 것이다. 어느 철인은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가 찾던 사람과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신화적인 방법으로,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였다. 이 혼돈은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 먼 우주의 이야기도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이가 허전해져서 마음을 잡을 데가 없게 된다. “엄마” 하고 들어와도 아무도 없으면 아이가 헛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세상에 부모가 다 직장에 다니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 허탈한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충해 줘야 한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방긋방긋 웃고 재롱을 부리던 아이도 엄마 얼굴이 안보이면 대번에 울어 버린다. 엄마가 없으면 허전해지기 때문이다. 엄마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잘 놀지만 엄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울어 버린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같다. 왜 혼돈한가?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다.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혼돈하고 공허할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타고날 때부터 공허하고 허무라고 했다. 어떤 이유로 인생이 허무해졌는지 맨날 허무만 생각하고 ‘나는 허무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경험

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을 당해 본 사람은 허무를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뭔가 자기 뜻대로 안되면 허무해지기 시작한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허무해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허무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무를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허무를 느끼게 된다.

충족을 느낀다는 말은 허무를 느낀다는 말이기도 하다.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서 팽팽하게 될 수 있으면 바람이 빠져서 쭈그러질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도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만족할 때가 있으면 허무할 때가 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극복해 가는 것이다.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허무해지게 된다. 그때 그때의 과정을 잘 못넘기면 허무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증세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다. 그런데 우주가 허무한 것은 사람이 없어서다. 땅이 허무한 것은 사람이 없어서다. 자기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2장에는 비슷한 말이 다시 나온다.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고 해 놓고 “땅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였다. 땅에 사람이 없으면 경작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물의 왕국이 되거나 식물의 왕국이 되고 만다.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거둔다.

내가 살던 곳은 섬 지방이었는데 우리 동네는 바닷가에 있었다. 거기는 넓은 평야가 없고 전부 산지였다. 처음 이주했던 김 씨들이 경사가 낮은 땅을 개간해서 동네 뒤가 전부 그 사람들 밭이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놓았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그렇게 밭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이 안살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잡초만 나고 엉겅퀴만 나게 된다.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은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의 왕국이 된 것이다.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동물들이 비켜날 것이다. 집안도 마찬가지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깨끗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만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있다. 사람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것이다.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가 왜 사람, 사람 하느냐 하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실 수 없다. 호랑

이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는가 코끼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는가? 하나님에게는 꼭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저런 사람인데…….'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라며 내세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쓰실 이에 따라서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즉 누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이 성경의 문제다.

국가에서는 '누가 국가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며 찾는다. 군대를 만들려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늙은이만 있으면 군대가 안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젊은 군인이 필요하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는 군가처럼 젊은이들이 일선에서 추위에 떨고 서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데가 따로 있다.

그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말한 것이 성경이다.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는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니까, 없으면 안되는 사람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도 누구에게는 필요한 사람, 어디엔가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아무 데도 필요 없으면 멸망이다. '아니야. 나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 나는 어디 갈 일도 많고 이럴 일도 많고 저럴 일도 많아. 내 인생은 너무나 바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바쁜 것이다. 열심히 사는데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마는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유식해서 좋거나 무식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좌우간 엄마는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도 쓰일 자리만 확실히 있다면 만족한 인생이다. 어디에 쓰여도 확실하게 쓰이면 된다.

그러나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데도 쓰일 데가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 누군가에게 필요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래서 잘못 하고 있고 저래서 잘못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월급 깎일 일밖에 없고 제일 먼저 감원될 일밖에 없지만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아무도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최대식 형제는 항만 설계를 하는 토목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의 사장과 친구 사이로 처음부터 그 회사에 다녔다. 그 형

제가 일을 잘하고 똑똑해서 사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반항하기도 하는데 최대식 형제는 무엇이든지 사장 뜻대로 따르고 긍정적이어서 사장이 필요로 한 것이다. 사장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사장이 신뢰를 하니깐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일을 따로 떼어서 계속 맡긴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년퇴직이 없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면 정년이 지나도 쓰인다. 내 필요에 맞는 회사는 없겠지만 나를 회사에 맞추면 그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자기만 잘하면 되니까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하며 불평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은 사람 때문이다. 사람 때문에 혼란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땅에 내려왔는데 앞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땅이 물로 차 있어서 앞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땅은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지만 깊은 물에 덮이면 아무 쓸모가 없다. 바다속 깊은 데는 빛이 전혀 없어서 깊은 바다 속에 사는 고기는 눈이 거의 없다고 한다. 빛이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이 많이 쌓이면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였다.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빙빙 돌고 있다는 뜻이다. 내 머리 위에 와서 나에게 앉으려고, 나를 쓰려고 하는데 도대체 앞을 데가 없다는 것이다. 왜 앞을 데가 없는가? 생각이 너무 많거나 개똥철학에 쌓여 있거나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 보아도 앞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너풀거리더라는 말이 이런 말이다.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데 앞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으니 다행이지 다른 문제로 고민했으면 하나님이 쓰셨겠는가. 나는 다른 문제로는 별로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 내가 하던 일이 망해서 정말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이 생각은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뒤에 생각해 보니 그때 나는 하지 못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셨는지 나를 쓰셨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옛날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어디 필요한 데가 없는가 하고 아무리 보아도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

이라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야심이 너무 많거나 다른 일에 몰두해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시려고 해도 “지금 나는 바쁘니까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는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해 보면 다 시간이 없다고 한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한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기에 일요일 날 교회에 못나올 정도로 하는가? 공부가 아니라 노느라고 시간이 없는 것이다. 진짜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 보면 알 것이다. 인생은 바빠도 헛되이 바쁘면 멸망이고 생각을 해도 헛된 것을 생각하면 멸망이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처음부터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처음부터 마땅한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내가 교회에 붙어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친구들이 많았고 다 교회를 한 번씩 들락거렸는데 붙어 있지 않고 가 버렸다. 그렇다고 시골에서 별 것이 라도 한 것이 아닌데 재미를 못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째서 재미를 느꼈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붙어 있다가 은혜를 입었다. 떨어져 있으면 은혜를 입기 어렵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다. 고민을 해도 필요한 고민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도 복이 될 생각을 해야 되지 복이 안될 생각을 하면 안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 없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억지로 못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다려 보자.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보자. 내년에 안되면 또 내년에 보자.’고 하신다. 그러다 보면 늙어 버린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이다. 세상은 점점 바쁘게 돌아간다. 도시로 나올수록 더 바쁘고 발전된 세계라 해서 가 보면 더 바쁘다.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일만 많이 하다 가는 것이다. 사회 구조가 돈을 많이 써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벌어야 한다. 옛날 같으면 넉넉한 돈인데 지금은 그것으로는 안된다. 혼자 벌어서 안되니까 둘이 벌어야 되고 식구대로 다 나가서 벌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 차도 있어야 하고 기름값도 있어야 하니까 부유해질 시

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될수록 떼돈을 벌 수 없게 된다. 벌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매주 주급을 받아서 산다. 그들은 주말에 놀러갈 생각을 하느라고 인생을 사는 셈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가는 형편이니까 학생들을 잘 키워야 한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겨우 집에 있지만 조금 크면 세상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세상으로 가 버린다. 우리 교회의 2세들도 그렇다. 공기만 쐬고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듣고 살아서 하나님이 오셔도 있을 데가 없다.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우리 아이들 위에 운행하고 있다. 앓을 데가 없어서 계속 돌고 있는데 아이들은 바쁘다고 한다.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말씀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바쁘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다. 교회 안에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심했던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냥 두니까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말씀을 듣지 않은 아이들은 세상 아이들과 같이 되었다. 듣기 싫다고 해도 엄마가 계속 말씀을 해 준 아이들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되겠지.’ 하고 놓아 둔 아이들은 세상 아이들과 같이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 우리 2세들이 다 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때는 주일학교를 할 형편도 안됐고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못했는데 주일학교를 했어야 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인가 남의 문제인가?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냥 빛이 오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다. 캄캄하고 어둡고 끝도 갖도 없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길을 모르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나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사람들도 그러하다.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있다. 나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나는 한 교회에서 8년간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무슨 좋은 말은 많이 했겠지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을 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말을 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은혜를 입게 되는 길로 오게 되었지만 다른 일로 바쁘으면 나는 전혀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고민을 하려거든 진짜 고민을 해 보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식으로 큰 고민을 해 보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고민인데 나는 그런 엉망진창인 고민을 몇 년간이나 했었다.

그래도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나왔다. 만약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오색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들으면 웃을 것이다. 가게를 비워놓고 있으니 하루는 동네 동생뺄 되는 아이가 오더니 가게 좀 쓰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무엇을 하려느냐고 물으니 도장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허가가 있다기에 해 보라고 했고 거기서 별면 조금씩 받아서 그 어려운 때를 넘기고 살았던 것이다. 지금 나에게 하얀 도장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직접 판 도장이다. 그 동생이 도장 파는 것을 보고 빈 시간에 판 것인데 내가 가장 가난할 때 판 이 도장으로 교회 살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출금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대명동 농협의 통장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다. 몇십 년 동안 거래했으니까 그 돈을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기 통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도장은 가장 가난할 때부터 가장 돈을 많이 쓸 때까지의 기념물이다. 그 도장은 내 일생을 상징하는 물건이니까 아들에게든 교회에게든 유품으로 남기려고 한다. 하도 써서 닳고 가에는 다 떨어져 나갔지만 내 인생의 기록이다. 그러면서도 한 끼도 굶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것이 다 헛되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나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은 늘 내게 와서 배회하셨을 것이다. 앓을 데가 있나 없나 하며 앓을 데를 찾아 배회하셨던 것 같다. 내가 너무 곤고함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 오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앓을 데를 찾고 계신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며 찾으신다. 그런데 방향하고 배회하느라고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와서 찾고 있다. 여러분에게 와서 찾고 있는 것이다. 왜 찾으시는가? 그분에게 쓸 데가 있어서다. 그분에게 쓰이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내 인생을 누가 써서 이보다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더욱 영광스럽다.

나는 끝없이 할 말이 있다. 나는 복을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을 줄 수 있다. 야곱이 백삼십 살에 바로를 만나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도 나는 복을 줄 수 있다. 누구도 내가 가진 복보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을 주고 싶은 것이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할 말도 많고 줄 것도 많은데 내가 시간도 없고 건

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인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살게 하시면 내가 그 값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드물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천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는가. 남에게 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 자랑을 하는 것보다 꼴불견이고 미운 것은 없다. 남에게 줄 것이 많아야지 자기 창고에 넣어 둔 것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복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지 남에게 줄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주고 또 줘도 끝이 없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내 인생에서 짝 물러났다. 그리고 땅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나면 씨가 뿌려질 수 있다. 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재미있게 되어 있다. 창세기를 누가 썼는지 몰라도 너무나 재미있게 써 놓았다.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기한 일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깜깜한 밤에 빛이 비치는 것 같다.

이것은 자연현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조냐 진화냐 하며 논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쓴 사람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세상과 관계를 갖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다 세상과 관계를 갖고 살고 있다. 시장에 가서 쌀도 사고 채소도 사야 된다. 시장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세계는 나의 사정과 관계없는 세계다.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것이 내가 사는 비밀이다. 나에게 어둠이 없는 비밀이다. 나는 어두울 일이 없다. 어둠이 와도 오히려 “빛이 있으라.”고 하게 된다. 혼돈에는 빛이 있으라 해도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어둠이 오면 내 속에서 빛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한철아, 그렇지? 정한철 형제는 기억력이 없어서 금방 잊어 버리지만 바로 들은 말은 알아듣는다.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다. 내가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늙어가고 있다. 여러분은 내가 만났던 학생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철이 많이 든 사람들이다. 말씀도 훨씬 잘 알아들을 것이니까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

다.

세상에 줄 것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편하고 풍부하겠는가. 모 자라니까 맨날 싸우는 것이다. 서로 해먹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다. 세상은 빼앗아 먹고 말 것도 없는데 뼈다귀 하나를 두고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즉 고민할 일로 고민하기 바라고 걱정할 일로 걱정하기 바란다. 희망이 있는 일로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면 답이 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대들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완전한 대답이 나온다.